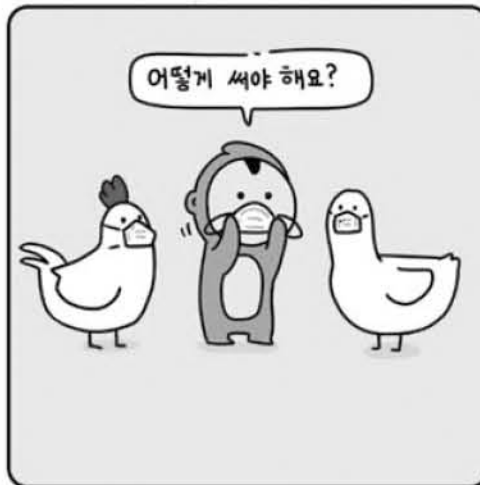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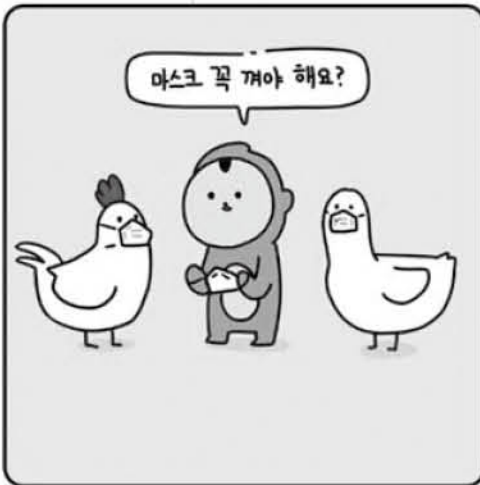


DUCK'S NEWS

오리가 알려주는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착용법

다음웹툰 <키몽의 호구로운 생활> 89화



오리초밥·철판오리주물럭·청국장 ‘면역력’ 강화

KBS 2TV 생생정보, 특별 3단 세트메뉴 소개



생소한 메뉴인 오리초밥, 말만 들어도 입맛을 다시게 하는 철판 오리주물럭, 깊은 멋의 청국장까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특별 3단 세트 메뉴가 방송에 소개됐다.

3월 3일 방영된 KBS2 '2TV 생생정보'의 <비법 24시, 밥상을 털어라>에서는 시각까지 사로잡는 오리초밥과 잡내 없고 감칠맛 나는 철판 오리주물럭에 이어 오리고기의 느끼한 맛을 완전하게 없애주는 청국장까지 코로나19로 불안감이 쌓이는 요즘같은 날 꼭 필요한 건강식을 만드는 비결이 공개됐다.

오리초밥은 50cm틀에 고슬고슬하게 지은 밥을 넣고 오리주물럭을 올린 후 불맛을 입혀 미각은 물론 시각까지 사로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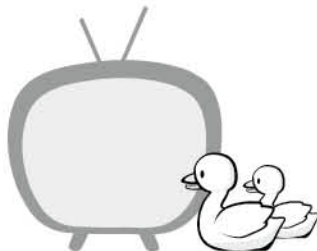
철판 오리주물럭은 새우 파인애플 치즈풍두구운 마늘, 떡 송이버섯 팽이버섯, 계란이 올려져 맛의 풍미를 더한다.

무엇보다 이 집의 철판 오리주물럭은 오리 잡내가 없고 감칠맛이 일품이다.

오리 잡내 잡는 것이 이 집 맛의 비결이 시작이다. 이 집의 특별히 제작한 기구에 오리를 꽂아 참나무 훈연실에서 훈연시켜 잡내를 잡는다.

참나무 훈연으로 1차 잡내를 잡은 후 2차로 밀간 작업을 한다. 또 하나 이 집만의 맛의 비결은 양념이다. 간장에 팔각을 넣어서 끓인다 양념장에 함께 버무려주면 완성된다.

▶ 더셀럽 [2020. 3. 3]



DUCK'S NEWS

종오리장 인근 돼지사육 제한 법제화를

오리협회, 양돈장 시 발생뎀 전파 위험 커 법적 규제 필요

국내 육용오리 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원종오리장과 종오리장 인근에서 돼지 사육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오리협회에 따르면 전남 장흥의 두 양돈농가가 한국원종오리농장 500m 이내에 축사를 건축하려고 군에 허가를 신청했지

만, 축산냄새와 환경피해 등을 이유로 장흥군은 최근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앞서 오리협회는 군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2월 하순부터 공문을 보내고 군청을 방문해 양돈장 건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만에 하나 허가받은 양돈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한국원종오리농장은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돼 자칫 오리산업이 붕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해당 원종오리장은 전체 종오리 공급량의 80%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돼지는 AI 중 A 혈청형의 H1형과 H3형에 감염될 수 있는 동물로 알려졌다. 손영호 반석가금진료연구소장은 “돼지와 가금류 가운데 어느 한쪽에서 AI가 발생하면 정비나 야생동물을 통해 서로 전파가 가능하다”면서 “육용오리 수급에 영향을 미



치는 원종오리장과 종오리장 근처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과거 AI 발생 당시 수평전파를 우려해 돼지를 가금류와 함께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넣은 적이 있다. 2004년엔 충남·경남의 AI 발생지역에 있던 돼지 9410마리

를, 2006~2007년엔 충남·경기·전북 지역의 돼지 1만8,010마리를 살처분했다. 이번 사태는 양돈장 건축 불허가 처분으로 마무리됐지만 앞으로 비슷한 상황을 대비해 적어도 원종오리장과 종오리장 근처에선 돼지사육업을 제한하도록 축산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오리업계는 요구하고 있다.

현재 축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500m 이내 돼지사육업 허가가 제한되는 축산 관련 시설은 사료공장(어류용 제외)·종돈장·정액처리업체 등으로 원종오리장과 종오리장은 제외된 상태다.

김만섭 오리협회장은 “원종오리장을 포함한 전국 70여개 종오리장은 육용오리 수급에 필수적인 시설”이라며 “법령을 정비해 같은 위험이 반복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농민신문 [2020. 3. 11]

April 2020

오리 사육휴지기제 개선방안 마련될까

농식품부, 정책연구과제 연구용역 진행

농식품부는 3월 4일 정책연구과제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통해 가축(오리) 사육제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리 사육휴지기제는 지난 2018년 열린 평창 동계 올림픽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2017년 겨울부터 전격 시행됐다.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고병원성 시가 발생하지 않는 등 방역과 관련된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오리산업에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3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연구기관은 사육제한이 관련 산업과 시장에 미친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오리 수급 등 시장에 미친 영향과 오리농가, 계열화사업자, 도축장, 부화장, 사료업체 등 관련 산업에 미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사육제한의 방역적 효과, 필요성,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과를 분석해 사육제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검토, 단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축산신문 [2020. 3. 11]

제주시, 제주산 오리고기 구매행사 추진

공직자 대상·소비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제주시에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관광객 감소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주 소비가 음식점에서 이루어지는 오리고기 특성상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리 사육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공직자 제주산 오리고기 구매 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축산농가 어려움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 제주시 오리 사육농가: 5개소·30,143마리 도 15농가·31,389마리

이번 공직자 제주산 오리고기 구매 행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제주산 축산물 소비활성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각 부서

및 읍면동, 사업소에서 오리고기 구매를 희망하는 공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할 계획이며 판매 상품은 통오리 2.2kg, 생육슬라이스 1kg내외, 통오리훈제 900g내외로, 세트구성(2마리 분)은 A세트부터 D세트까지 4종류의 세트를 구성해 세트별 2만3,000원부터 2만6,000원까지 가격을 책정, 구매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믿고 찾는 먹거리 시스템 구축 및 제주산 축산물 소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내외뉴스통신 [2020. 3. 19]

DUCK'S NEWS

정부, 축종별 '적정 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 개발

농가 사육마릿수 적정하게 관리·향후 앱 개발

스스로 자신의 사육 마릿수에 맞게 축사 면적을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9일부터 축사내 가축사육 시설 면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축종별 '적정 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축산농가는 축종별·성장단계별로 사육 면적기준이 다르고, 계산이 복잡해 스스로 사육밀도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A 씨는 최근 00시부터 축사 내에서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해 사육하고 있는 돼지 일부를 빠른 시일내에 처분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A 씨는 "지금까지 관행처럼 지레짐작으로 사육해 왔는데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소연 했다.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경우에도 관내에 적게는 수십 마리부터 많게는 수만 마리까지 사육하고 있는 농장이 가축 사육밀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장의 축산농가의 경우 적정 사육두수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현장 지자체 담당자들은 "축산농가와 지자체 담당자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정사육두수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번에 새로 제공하는 '적정 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을 통해 축산농가가 가축 사육밀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농가가 축산물이력제 누리집에 접속해 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을 활용해 축종별 성장단계별 가축 사육마릿수를 입력하면 적정 사육면적과 실제 사육면적을 계산하고, 해당 농가의 사육밀도 기준 초과 여부 알려준다.

농식품부에서는 '적정 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축산단체 및 지역 농축협이 누리집에 해당 프로그램을 게시하고, 축산농가에게 문자발송, 카톡 대화방, 밴드 등으로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축산물 이력제 누리집에서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정보와 축산물 이력관리 정보를 비교해 농장별로 사육밀도 초과 여부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자체 담당자는 알림서비스를 토대로 유선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농가의 사육밀도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농가가 가축 사육밀도를 준수하도록 지도·점검에 활용하게 된다.

▶ 농축유통신문 [2020. 3. 18]

April 2020

가금농장 SOP규정 강요에 농가 “가금산업 말살” 원성 입식전 점검기준 강화 ‘부당’... “현실적 시 대책마련을”

최근 정부가 가금 농장 전실설치 기준을 조류인플루엔자(AI)긴급행동지침(SOP)을 준용하라는 지침에 가금농가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3일 가금농장 입식 전 현장 점검 및 지도 철저 공문을 각 지자체로 전달했다. 공문에는 고병원성 AI의 해외지속 발생 등 AI 발생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금농가 입식관리를 강화 있으니 농장에서 입식 전 신고시 반드시 자체적으로 청소상태와 방역시설 점검을 꼼꼼히 실시한 후 신고토록 교육 및 홍보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문제는 가금 입식 전 점검 시 가금농장의 전실 설치를 AI SOP에 따른 재입식을 위한 전실 설치기준을 준용해 점검하라는 대목이다. 가금단체는 이 같은 내용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에 농가들의 전실 설치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는 SOP의 제26장 AI 발생농장의 입식시험 요령에 있는 강화된 전실 설치기준을 모든 일반 가금농가들에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가금단체는 “법에도 없는 AI 발생농장의 전실 설치기준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방역정책국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양계협회·한국육계협회·한국토종닭협회·한국오리협회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방역정책국은 지난 2월 국내에 AI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졸속으로 AI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3월 한 달간 연장한 바 있다”며 “이제는 모든 가금농가들이 가금류를 입식하기 위해서는 AI 발생농장과 마찬가지로 강화된 전실 설치기



준을 준수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토론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늘 과도한 방역을 강조하던 방역정책국은 이제는 법에도 없는 사항을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어떠한 시설자금 등 지원도 없이 농가들에게 강요한단 말인가?”라고 물었다.

가금단체는 방역정책국에 일방적인 규제가 아닌 농가와 소통을 통한 현실적인 AI 대책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가금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전국의 가금농가들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정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금산업의 말살을 원하는가?”라며 “그렇지 않다면 일방적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농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실적으로 AI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이어 “AI 특별방역대책기간과 사육제한 연장 등으로 피해를 입은바 있는 가금농가들이 법에도 없는 입식 전 점검 기준에 따라 입식이 지연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우리는 생존권 사수를 위한 대응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방역정책국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 농축유통신문 [2020. 3. 25]

DUCK's NEWS

배우 김수미, 대구·경북에 1억원 오리백숙 기부

중견 탤런트 김수미 씨가 통큰 재능 기부를 이어간다. 김수미 씨는 최근 대구, 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종사자, 및 각

시민단체 봉사자들, 코로나19가 확진된 환자들 및 각계각층에서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본인이 직접 레시피를 만들고 판매중



인 식품 중 면역력 증진 및 피로회복, 해독작용이 뛰어난 오리백숙을 대구·경북지역에 기부했다.

1억원 상당의 물품기탁(오리백숙

2,148봉)은 3월 26일 대구시 스타디움에 전달했다.

▶ 스포츠조선 [2020. 3. 26]

영암 축산기관·단체, 코로나19 극복에 동참

2,500만원 상당 성금품 기부...지역사회 환원 상생·발전

전남 영암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군 축산 기관·단체가 2,500만원 상당의 성금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영암축협, 한우협회, 한돈협회, 양계

협회, 오리협회 등 5개 축산 기관·단체가 기탁한 성금품(라면·마스크·돼지·오리고기·현금)은 공



▲ 왼쪽부터 오리협회 영암군지부, 한돈협회 영암군지부, 전동평 영암군수, 양계협회 영암군지부

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가구, 복지시설, 취약계층 방문종사자 등 군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각각 전달됐다.

군 축산단체는 지역사회 환원을 통한 주민과 상생하

는 축산업을 실현하고자 최근 6년 동안 군민장학회에 22회, 총 8,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해 지역

April 2020

인재육성에 기여했다. 또 매년 2회 이상 소외계층 한우·한돈 나눔행사, 학교 급식지원 행사 등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축산환경 문제로 인한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축산농가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축산단체 관계자는 “이번 성금품은 최근 2년 동안 주민들의 협조와 도움 속에 구제역, 조류인플루엔

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지역사회에 전달하고자 한 것이었다”며 “앞으로도 축산업의 현대화와 지역사회 환원을 통해 상생·발전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남도일보 [2020. 3. 30]

전북 정읍시 영원면 가금농가, 코로나19 이웃돕기 성금 기탁

재난 취약계층 위한 감염병 예방물품 구입 지원

전북 정읍시 영원면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이웃을 위해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영원면에서 닭과 오리를 사육하는 유종수 씨 외 3명은 지난 달 2월 28일 영원면

사무소를 방문해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기탁자들은 “지난 2014, 2016년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희생을 느꼈다”며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속출하



는 상황에서 영원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고자 기탁을 결정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철영 영원면장은 “하루속히 코로나바이러스가 진정되기를 기원하며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하게 전달하겠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이날 전달된 기탁금은 마스크와 소독제 등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감염병 예방 물품 구입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 뉴스웨이 [2020. 3. 3]